

지역 소식통

부안군, 중동사태 위기 극복 승용차 5부제 시행

부안군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호환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 공무원과 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의무 적용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입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서 제외된다. 군은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차량공유(카풀)를 적극 장려해 국가적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군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중동 상황 비상 경제대응TF 점검 회의

부안군은 중동지역 점령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응TF 점검 회의를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TF의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이 운영 중인 비상경제대응TF는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 석유 가격 안정 분야, 수출기업 지원 분야, 농어업인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포함한 생필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천 벚꽃길서 '봄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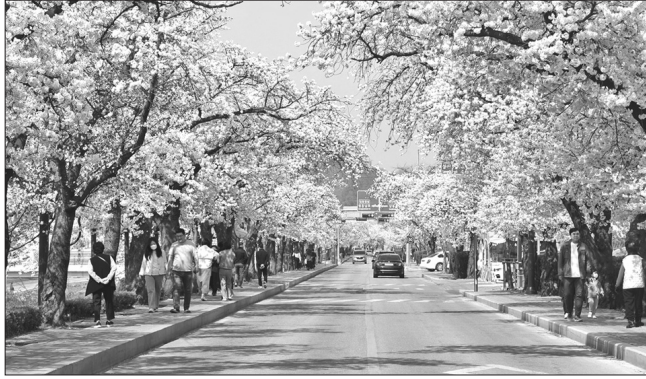
내달 3~5일 '정읍 벚꽃축제' 개최... 인기 가수 초청 공연·체험·먹거리 풍성

정읍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인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체육장 일원에서 개최하며 상춘객 맞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991년 시작돼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정읍 벚꽃축제는 정읍천 벚꽃길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지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다. 올해는 '정읍과 봄'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아 운영된다. 특히 벚꽃과 공연, 체험과 먹거리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이자 낮과 밤 언제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봄 축제로 기획된 점이 돋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막식부터 폐막까지 3일 내내 쉬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공연 라인업이다. 개막일인 4월 3일에는 오후 6시 김예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30분에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 정승환·김용임·라이프·카르디오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축하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민경훈·정슬·아리안 등이 무대에 오르는 벚꽃 콘서트



서트가 열리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예린·한강·강해연 등이 참여하는 폐막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낮 시간대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벚꽃길 곳곳에서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상시 운영된다. 행사장 내에는 먹거리 부스 13개소, 푸드트럭 8개소를 비롯해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해 개막식이 열리는 4월 3일, 정주교에서 초산교 구간 약 400m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행사장 일원에는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벚꽃과 불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경을 연출하며 체류형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벚꽃 인증 사진 이벤트, 모바일 보물찾기, 벚꽃



국공립 '푸르지오더퍼스트어린이집' 개원

정읍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정읍시는 지난 27일 이학수 시장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 '푸르지오더퍼스트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공 보육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기념하는 '열린 어린이집의 날'과 연계해 이학수 시장과 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박일 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들도 참석해 경과보고, 축사, 기념행사, 시설 순회 순으로 이어졌다.

국공립 '푸르지오더퍼스트어린이집'

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보육 시설이다. 보육 수요가 높은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면적 286.48㎡, 정원 49명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보육실 4개, 유희실, 교사실을 비롯해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입주민 자녀와 지역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를 통해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보육 비품과 양구류 등 필수 기자재를 구비해 지난 2월 모든 개원 준비를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16개 기관과 전담조직·재택 의료기반 구축해 70여종 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초고령사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00여 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180여 명에게 방문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부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확립했다.

고창군 비상경제대응TF 2차 회의 개최

공공부문 차량 5부제·에너지 절약운동 절약 동참 당부

고창군이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및 에너지 절약운동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본청에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하고 23개 읍·면·동과 보건소 등 유관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했다. 또한 2025년 9월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올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16개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산은 총 6억 43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돌봄서비스 60종에 정읍시 지역특화서비스 10종을 더해 총 70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 건강맞춤 영양식사 서비스, 안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틈새요양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운동 서비스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진 △소상공인지원=고창군 운전자금 특례 보증 및 경영안정 바꾸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 등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특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활용을 올해에는 12%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이상 없음'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정읍시가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일부에서 불거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관내 공급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공급 업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판매소에서 일시적인 재고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수급 불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급 안정을 위해 시는 읍·면·동별 재고 점검, 규격별 균등 공급 관리, 판매 가격 준수 여부 확인 등 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읍·면·동과 협력해 판매소 재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 보유 물량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인한 사재기 및 불법 가격 인상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종량제 봉투 대량구매 자제 당부

고창군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 "현재 고창군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군민들께서 혼란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대량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신규 디자인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비해 이미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약 6개월분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 가격 인상 우려 등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로 과도한 구매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설에 대해서도 고창군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고창군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없이 단기적인 국제 정세 변화만을 이유로 즉각적인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